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요한계시록 2:1-11

【인도자를 위한 예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존 헤론(John W. Heron)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에서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앨런, 언더우드에 이어 1885년 조선에 입국해 곧바로 의료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그는 학교로부터 수련을 마친 후 교수로 남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흥회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헤론은 조선에서 선교사를 요청한다는 한 잡지의 글을 읽자마자 조선 땅으로 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사였기에 앨런을 도와 서울 제중원에서 사역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侍醫)로 활약했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의사로 헌신했습니다. 조선에 온 지 5년째 되던 1890년 여름, 그는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렸고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환자를 돌보면서 무리한 것입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임종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적혀 있습니다. 존 헤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산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2: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2장과 3장의 메시지는 1세기 말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개 지역의 교회에 각각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곱 도시는 소아시아 서쪽 중앙부에 있으며, 모두 96킬로미터 반경에 있습니다. 남서쪽의 에베소부터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와 버가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라오디게아와 사데 교회를 제외하고 각 교회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각 교회의 상황과 이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외적으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주어지며 메시지가 종결됩니다. 이를 특정한 지역과 한정된 수의 초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경종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인내로 칭찬받은 한편,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4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오늘날 튀르키예)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후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잠시 사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니콜라당을 비롯한 각종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 따랐던 열정과 결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행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도움, 신앙적 실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열정과 실천이 희미해졌기에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주님의 권면을 계속 거부하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나 승리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7절).

적용과 나눔 I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 열정, 사랑 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매우 정확하고 엄중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형식적 혹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동반하는 총체적인 경험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만남과 사랑의 실천에 참된 변화가 있고, 복음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9절)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는 에게해를 둘러싼 커다란 항구가 있는, 소아시아에서 최고를 다투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이면서,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우상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많은 유대인이 이주해 살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까지 대규모로 이주했기에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9절의 ‘환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하고, ‘궁핍’은 경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 자리를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등 경제적 제재가 극심했고, 그에 따라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성도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붙잡았고,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깊이 헤아려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형편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시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 편에서 부요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II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인내하거나 극복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일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직면한 환난과 궁핍을 곧장 거두시거나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절대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주는 주체, 고난의 시기, 정도, 방법, 기간 등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전반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삶은 고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고 고난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버리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